



8000여권의 장서들에서 책고르기에 열중하고 있는 삼영전자 직원들. 내년 5월 신축건물로의 확장 이전을 앞두고 도서실측은 장서의 내실화와 전산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루시간의 대부분을 일터에서 지내는 직장인들에게는, 업무에 지친 머리를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절실히 필요하다. 최근 들어 사업주측에서도 사원들의 복지시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1968년 창립 이래, 각종 電解콘덴서만을 생산하고 있는 三瑩電子공업주식회사(회장 邊浩成·경기도 성남시 신흥동 2460-1)는 그 어떤 사업체보다도 사원복지면에 일찍 눈을 떴다. 일하면서 공부하는 사원들을 위해 장학회, 社友組合, 기숙사, 공원, 의료시설 등을 마련했다.

종업원 2천명에 장서 8천권

8,030평의 대지 위에 3층짜리 건물들이 단정하게 들어서 있는 삼영전자의 정문을 들어서면, 왼쪽으로 단청무늬 고운 정자와 연못이 한 눈에 들어온다. 三松공원이란 불리는 이곳은 2000여 직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휴식처이다. 그 맞은 편에 보이는 건물 3층에 또다른 휴식공간인 도서실이 자리잡고 있다. 1974년에 설치된 이곳은, 한 때 출판계의 일선에서 활동했던 邊회장의 독서를 향한 관심의 소산이기도 해서 더욱 뜻깊다. 25평 정도의 작은 도서실이지만, 사방을 뻗뻗히 메운 8천여권의 장서들이 차분하고 학구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 회사의 도서실은 무엇보다도 보고 싶은 책을 잘 갖춰놓고 있다는 게 자랑이에요. 그래서 바쁜 틈을 내 자주 찾곤 합니다. 날이 갈수록 도서실의 고마움을 더욱 느끼게 되는군요.”

단골손님 백남현계장의 자랑처럼, 이곳 삼영전자의 도서실은 古典을 비롯한 각종 신간서적들이 잘 구비되어 있어 직원들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현재로서는 공간이 협소해 열람좌석 없이 대출만을 주로 하고 있지만, 그만큼 알차다는 얘기가. 따라서 직원들의 발걸음이 자주 머무르는 장소가 되고 있다.

점심시간인 오후1시, 도서실이 가장 붐비는 시간이다. 머리에 흰수건을 단정히 두른 여직원들이 서가 앞에서 책을 고르느라 분주하고, 간간이 남자직원들도 눈에 띈다.

대부분의 전자부품업체들이 여성인력에 의존하고 있듯이, 삼영전자 역시 전체 식구 중 3분의2 정도가 여직원들이다. 그래서인지 도서실 장서의 내용 역시 여성취향에 쏠려 있는 듯하다.

“아무래도 직원들의 취향에 따르다 보니, 시·소설·수필 등 문학분야에 치중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러나 총류에서부터 철학·사회과학·예술을 비롯해서 17종의 정기간행물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갖춰져 있습니다.”

담당자 趙源香씨(23)의 말이다. 마침 「이야기 세계사」를 대출한 박순덕양(검사과)은,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반드시 이곳을 찾는다고 말한다.

“현재 방송통신대학 경영학과 2학년에 재학하고 있어서 일하라 공부하라 정신이 없어요. 전공에 관한 책들은 대부분 개인적으로 구입해 보는 편이지만, 그외의 교양서적들은 도서실을 통해서 읽고 있지요. 한푼이라도 아껴서 공부하고 저축해야 하는 처지에서, 부담없이 독서를 할 수 있다는 게 기뻐요.”

비단 박순덕양 뿐만 아니라 직원들 모두가 이러한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신중동국여지승람」 「고려사절요」 등 고전국역서를 앞에서 열심히 책을 고르고 있던 한 여직원 역시, 도서실의 존재와 장서내용에 만족감을 나타낸

작지만 알찬 보금자리

三瑩電子의 도서실

다. 선 채로 독서토론을 하는 직원, 손뜨개안 내서와 요리책을 뒤적이는 직원들도 잠시 기계 앞을 떠나 책 속에 파묻힌 게 마냥 신난다는 표정들이다.

사내 독서운동의 중심지

도서실은 원래 복지회관내에 설치되어 있다. 가, 약 2개월전 기술분야의 도서들이 연구소의 자료실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현재의 자리로 옮겨왔다.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작업장과 한 건물 내에 있게 돼 직원들이 이용하기에는 더 편해진 것임이 있다.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정오부터 2시까지 두차례. 그러나 휴식시간을 이용하고 독후감을 제출해야만 졸업이 인정된다.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독서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혜택은 없고, 다만 졸업할 때 우수성적자들을 선별 표창하고 있다. 한편 도서실측에서는 해마다 우수독서부서를 선정, 발표해서 사내 독서운동을 더욱 가열시키고 있다.

도서실 확장과 電算化 계획

“직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일과 바람직한 독서성향을 유도해나가는 일을 적절하게 조화시키기가 가장 힘들어요. 좋은 책이라고 해서 어려운 내용의 책들을 마련해놓으면 직원들의 손이 거의 닿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또 요구하는대로 따르다보면 자칫 도서실의 질적인 면이 떨어지게 될 우려가 있어요. 따라서 머리를 식힐 수 있는 재미있는 책들을 구비하는 동시에, 분야별로 내용별로 적절한 조화를 꾀해 유익한 정보창구로서의 체구실을 다하고자 애쓰고 있어요.”

현재 성균관대학교 사서교육원에서 본격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 趙源香씨의 말에서, 직장해 수시로 이곳을 찾는 직원들의 독서열에 힘입어 실제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야말로 풀 가동하고 있다. 하루 평균 대출되는 책은 200여권 정도.

단골손님의 대부분이 여직원들이며, 평균연령도 20대 초반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 남자 직원들의 경우, 어학연수다 기술교육이다 해

서 바쁘기도 하지만, 아직도 책과 거리를 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고 趙源香씨는 다소 아쉬움을 나타낸다.

신간구입은 현재 3개월마다 300권씩 들어오고 있다. 도서실 자체 내에서 정기간행물 및 도서목록을 참고로 직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신간구입목록을 작성한다. 회사측에서도 도서구입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폭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의 일환으로 84년부터는 교육연수실내에 독서대학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해마다 50여명씩 입학해서 절반정도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는 독서대학은, 올해로 4년째를 맞아 현재 50명의 직원들이 과정을 밟고 있다. 필수도서 5권과 자유도서 24권을 읽도록 도서실이 안고 있는 어려움과 역할을 가름해 볼 수 있다.

삼영전자의 도서실은 비록 현재로서는 적은 규모이나, 내년 5월에 완공될 사무실전용 건물로 확장·이전할 계획이어서 직원들의 기대가 대단하다. 앞으로는 도서구입도 매달마다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효율적인 장서관리를 위해 현재 전산실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작 중에 있어, 국내에서는 그리 흔치않은 완전전산화 도서실이 될 것 같다.

독서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생활에 쫓기고 업무에 쫓기는 직장인들은 한편의 책에 가까이 다가서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갖가지 내용을 담은 수 많은 책들이 직장의 한 구석에서 자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연히라도 책들의 방을 찾게 되고 다시금 독서라는 다소 지루한 행위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이 기쁨이 직원들의 가족으로 자연스레 전해지게 되면 결국 우리 사회 전체에 책을 향한 사랑이 퍼져나가는 것이니, 또다른 차원의 독서운동이 아닐 수 없다.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 직장도서실의 활성화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라 생각된다.

— 오애리 기자